



# 보 도 자 료

9월 25일(화) 조간

배 포 일	9월 21일/(총 9매)	담당부서	보육정책과/보육사업기획과 /보육기반과
과 장	김현준 / 이상진 / 한창언	전 화	2023-8920 / 8940 / 8950
담 당 자	신욱수 / 송양수 / 박성원		2023-8911 / 8934 / 8958

## 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

-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한 양육수당제도 확대개편 -
- 가구여건 등을 고려한 實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 체계 구축 -

### < 개편(안) 주요내용 (‘13년 3월부터 시행) >

#### □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

- ① (0-2세)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
  - 月 지원단가 (0세 20만원, 1세 15만원, 2세 10만원)
  - \* ‘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
- ② (3-5세) 신규도입,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(월 10만원)

#### □ 0-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

- ① 종일제/반일제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
  - 종일제(현행) : 맞벌이·취약계층 등 / 반일제 : 전업주부 등
- ②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
  - (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
  - (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이용
  - \* ‘12년 현재는 바우처(부모지원)와 기본보육료(시설지원)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
- ③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
  - 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%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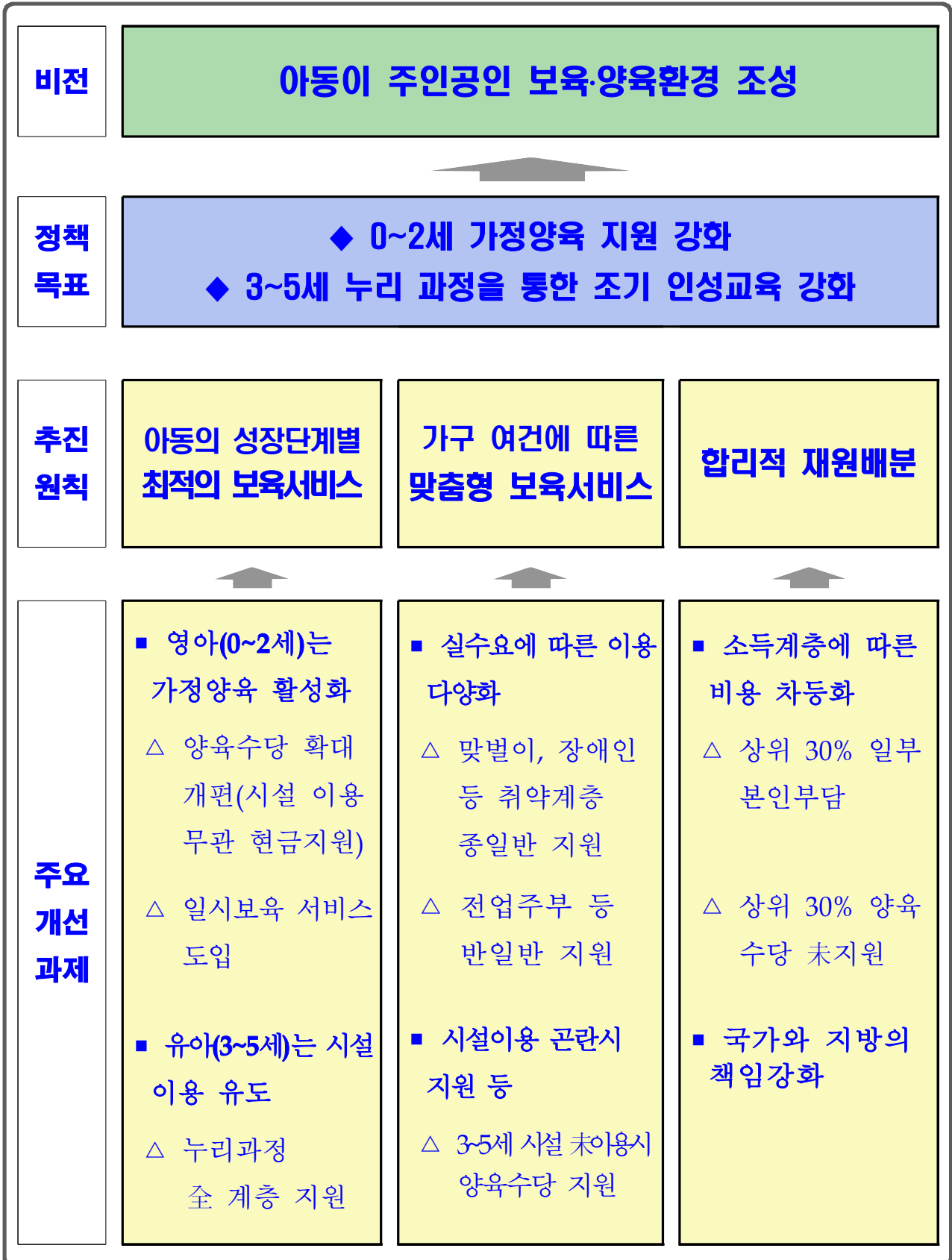
#### □ 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(일시보육) 신규 도입 (시범사업)

- 보건복지부(장관 임채민)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'13년도 보육지원 체계 개편방안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.
- 이번 개편(안)은 금년도 **0-2세 보육료** 쏠계층 지원이 시행된 이후,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△**맞벌이 부모 등 實수요층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**과 △**종일제 단일보육으로 불필요한 시설이용에 따른 재정누수 등 비효율의 문제** △**시설보육과 가정양육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**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등 **그간의 시행착오를 보완하기** 위하여 마련하였다.
- 정부는 보육·양육정책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**그간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·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하고,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·논의해 왔으며,**
  - ※ 국무위원간담회(3.4), 국가재정전략회의(4.28), 총리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(7회),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(1회)
- **지방자치단체, 언론, 학부모, 어린이집, 관계 전문가 등 각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, 정부내 협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다.**
  - ※ ‘학부모-전문가 간담회’(6.25), ‘공개토론회’(7.19), 중앙정부·지자체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(9.13)를 통해 보육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지속 수렴

### 〈 보육제도 개선에 대한 주요 의견 〉

- ▲ **가정양육과 시설보육지원간 형평성 확보 및 부모선택권 제고 필요**
- ▲ **가정양육부담완화를 위한 양육수당 대상확대 및 지원금액 현실화**
- ▲ **맞벌이, 가구소득 등에 따라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서비스 지원 필요**
- ▲ **단시간 등 비상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필요**

□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핵심 정책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.



## 1 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

-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가정양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.
  - **(0-2세)** 현재 시설을 未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%이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.
    - 지원단가는 현행과 같이 0세(20만원), 1세(15만원), 2세(10만원)이며, 내년부터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은 부모는 시설이용을 원하는 경우에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도 한층 강화하였다.
      - \* 현행 :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에 대해 20/15/10만원 지원
  - **(3-5세)** 현재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이 아닌 3-5세에 대해서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을 10만원 지원하여, 0-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.
    - 3~5세의 경우라도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·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하여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.

## 2 보육지원제도 개편

- 0-2세 보육지원제도는 實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.
  - 보육료는 현재와 같이 쉰계층 지원을 유지하되, 확실적인 보육 시간을 實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종일제/반일제를 도입하여, 實수요에 따라 이용시간을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- 이에 따라, 맞벌이·취약계층 등은 **현행대로 종일제 보육서비스**를 지원받고, 시설이용이 비교적 덜 필요한 **전업주부** 등은 **반일제 보육서비스**를 지원받게 된다.
- 다만,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**종일제 實수요 필요성\***이 있는 경우에는 **종일제 보육서비스** 지원을 할 계획이다.
  - \* 직업훈련, 학생, 보호자 부적절(출산, 질병 등),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경우 등
-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양육보조금이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부모의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.
  - \* (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
  - \* (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모두 사용하여 보육시설 이용
- 다만, 보육료지원제도가 양육보조금(현금)과 바우처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구조로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,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**상위30%**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금액만큼을 부모가 부담을 하게 된다.
- 한편, 정규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되, 이용비용에 부모부담을 일부 적용하여 시설의 적정이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.

### ③ 일시보육서비스 신규도입

- **非상시적인 보육수요**(외출, 병원이용 등)에 대처 가능하도록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대상으로 **일시보육서비스**를 제공하여 **부모의 편의를**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-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,
- 우선적으로 '13년도에는 시범사업형태로 실시한 후, 성과평가 등을 통해 **향후 확대적용여부**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.

#### 4 소요예산

-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**4.7조원** 내외(3-5세 보육·유아학비 예산 제외)로 **'12년도 수준을 유지**하였다.
- 큰 폭의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, 금년도 예산과 차이가 크지 않아 중앙과 지자체의 재원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다.

#### 5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지속 추진

-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**불요불급한 규제**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,
  - 시설 평가인증 제도를 확대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시설 및 안전·운영 투명성 등 보육서비스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.
  - 중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**평가인증 결과**(여부 또는 등급)에 따라 **재정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**하여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.
- **교사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** 등 보육서비스 질 향상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.
  -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**30만원**의 수당을 내년에는 **3~4세 담당교사**에게도 지원하고, 0-2세 교사는 수당을 5만원 인상하여 **10만원**을 지급 할 계획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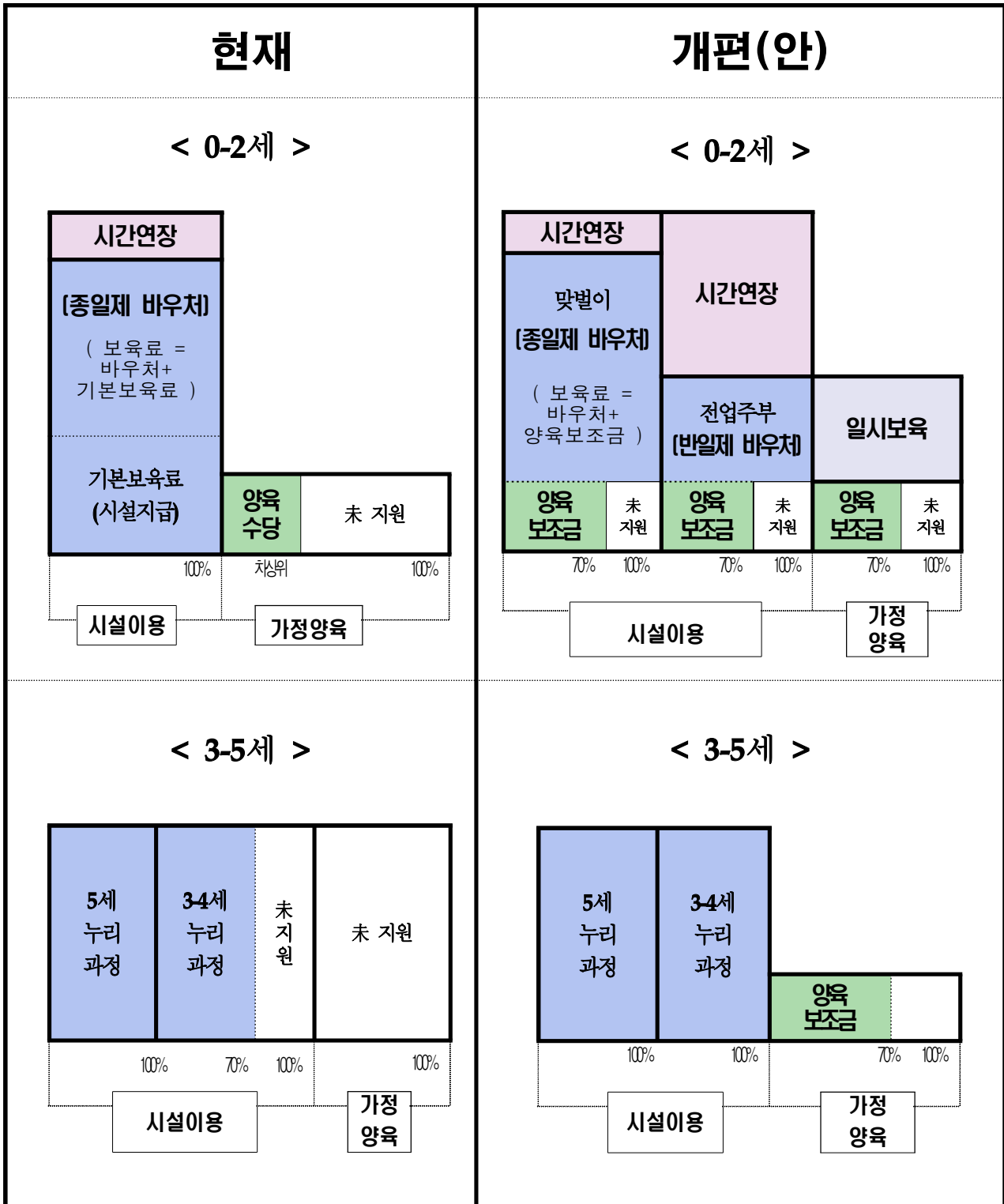
- 보육교사자격, 수급현황 및 추이 등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회적 공론화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## 6 향후 추진계획

- 제도시행은 어린이집 반편성 시기(3월), 관계 법령정비, 시스템 재구축 등을 고려하여 '13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- 필요한 법령,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, 신규 추진 과제는 연구용역 실시,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
-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,
  - ▲영아의 가정양육유도, ▲實수요층 보육지원강화, ▲소득수준별 지원의 공정성, ▲중앙·지방간 재원의 적정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고 實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개편한 것으로 향후 보육정책의 기본틀로 자리잡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며,
  - 정부에서 고심하여 마련한 보육지원체계개편안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, 국가의 장래와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.
  - 아울러, 내년도 시행시기에 맞춰,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참고 1

보육지원체계 개편(안) 체계도





참 고 2

제도개편 前後 비교

구 분	현재는( '12년)	앞으로는( '13년)
지원체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이용 : 보육료(종일제)</li> <li>▪ 가정양육 : 양육수당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이용 : 보육료 (종일제/반일제)+ 양육보조금</li> <li>▪ 가정양육 : 양육보조금 + 일시보육</li> </ul>
양육수당 (양육보조금)	<p>&lt; 0-2세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 未이용시에만 지원</li> <li>▪ (대상) 차상위계층까지 지원</li> <li>▪ (금액) 0세(20만원), 1세(15만원), 2세(10만원)</li> </ul> <p>&lt; 3-5세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원없음</li> </ul>	<p>&lt; 0-2세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</li> <li>▪ (대상)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</li> <li>▪ (금액) 현행과 동일</li> </ul> <p>&lt; 3-5세 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% 까지 10만원 지원</li> </ul>
보육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대상) 소계층 지원</li> <li>* 부모 자부담 없음</li> <li>▪ 획일적 시간(12H) 지원</li> <li>▪ 기본보육료(시설에 지급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(대상) 소계층 지원</li> <li>* 단, 부모 자부담 있음(상위30%) → 양육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%는 그 금액만큼 자부담 발생</li> <li>▪ 이원화된 시간 지원 → 종일제(맞벌이 등)와 반일제(전업 주부 등)로 구분하여 지원시간 차등 지원</li> <li>▪ 양육보조금(부모에게 지급) → 양육보조금으로 대체되어 부모에게 지급</li> </ul>
일시보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원 없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서비스 신설 (시설 未이용시 지원)</li> </ul>